

보사위

서울시감사에서 朴英淑의원(平民)은

『서울시가 지난 4월 시내 26개소의 지하상가 대기오염도를 측정 한 결과 잠실·영등포·영등·영등·영등 4개 지하상가의 대기오염도가 기준치(3백mg/m³)의 2배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 이의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진폐증예방을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

또 金漢奎의원(民自)은 『서울의 강우산도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기준치보다 무려 13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특히 대기중에 발암성이 강한 디벤조피진·디벤조안트라센 등이 섞여 있다』고 지적, 산성비를 맞을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려 고 추궁.

12.2.14%

李基鎔의원(平民)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사결과 물탱크가 설치된 서울시내 아파트의 24%가 인체에 치명적인 카드뮴·수은·비소 등이 들어있는 방청제를 부분 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규제 및 관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

宋斗鎔의원(民自)은 『지하철이 가고 불발 정도로 포화상태에 이 서울지하철내의 마면전 장에 인공노인들을 위한 노약자보호석』이 유령부설하다며 『노약자 전용객차』를 지정, 운용하라고 요구.

高建서울시장의 답변을 통해 『불발』 약화되고 있는 지하상가의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오염기준 설정 및 방청제를 방제해 주도록 환경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지하상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폐증검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보사위 감사에서 朴英淑의원(平民)은

『환경보건법령에 지하철과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는 노선을 지정하기 전에 환경처와 환경영향평가회의를 거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지하철 2, 3, 4, 5호선 신설공사와 북부간선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한차례도 환경처와의 협의하지 않는 등 서울 시장이 환경보건법 위반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

朴의원은 『서울시민의 97%가 수도물 수질을 불신하고 있는데도 서울 시장수도 수질감시위원회가 발표한 발암물질 THM 함유량 16개 항목에 대한 수질오염측정 결과는 단 한 번도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수질검사를 담당해야 타당하지 않느냐』고 추궁.

또 鄭基榮의원(平民)은 『서울시장이 대표이사인 독심골프장이 발암 우려가 있다는 학계의 보고에 따라 美환경청에서 조사중인 美獨하스社 농약 만코지를 작년 전체사용량 2백21.5kg의 15%나 되는 양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제품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

鄭의원은 『독심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이 농지와 산림에 살포하는 평년사용량보다 각각 5.5배, 7.7배에 달해 3백여m 떨어진 독도수원지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서울시민의 발암물질공급을 위해 골프장을 폐쇄하고 시민휴식과 건강을 위한 다른 시설도 활용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

지하철 2, 5호선 전설때 환경평가 받지 않고 착공

국회제출자료서 밝혀져
서울시가 1일 국회보
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
르면 시는 △지하철 12월
18일 착공한 지하철 2
호선 4호선 연장공사 △6월
27일 착공한 지하철 5호
선 신설공사 △지하철 23
일 착공한 북부간선도로
건설공사 등의 환경영향평
가를 현재까지 하지 않고
한 사실이 밝혀졌다.

현행 환경보건법 제5
조 및 시행령 제4조2항
은 지하철도와 도로를 건
설하는 사업시행자는 노
선 지정하기 전에 환경
처와 환경영향평가회의를
끝내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환경처
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심
의중이므로 본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평가를 끝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상가 상인도 진폐증 무료진단

高建시장
서울시내 26개 지하상
가 상인들에게도 진폐증
검증여부를 확인하기 위
한 정기검진이 무료로 실
시된다.
高建서울시장은 1일
열린 국회보사위의 서울
시 감사에서 발표 약화되
고 있는 지하상가의 공기
오염으로부터 상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
부를 확인하기 위한 무료
진폐증 검사 실시하겠다고 밝
혔다.